

외환리포트

전일동향

전일대비 8.60원 상승한 1,319.10원에 마감

6일 환율은 전일대비 8.60원 상승한 1,319.10원에 마감했다.

이날 환율은 NDF 증가를 반영해 전 거래일 대비 6.00원 하락한 1,316.50원에 개장했다. 간밤 미국 경제지표가 예상치를 하회하며 달러인덱스가 상승한 영향을 받아 갭업 출발한 환율은 장 초반 1,320.50원의 고점을 기록하기도 하였으나 수출업체 네고물량이 유입되면서 추가 상승은 제한됐다. 오후 들어 환율은 1,310원대를 횡보하다 1,319.10원에 마감했다. 장중 변동 폭은 4.00원이었다.

한편, 이날 외환시장 마감시점의 엔-원 재정환율은 1003.34원이다.

전일 달러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평균환율
1316.50	1320.50	1316.50	1319.10	1318.70

전일 엔화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1001.18	1008.66	999.77	1000.83

전일 유로화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1428.81	1442.78	1428.30	1440.36

F/X(달러-원) 스왑포인트

	1M	3M	6M	12M
보장환율(수출)	-1.69	-6.67	-14.22	-26.45
결제환율(수입)	-1.27	-5.47	-12.3	-23.59

* 전일자 청약고객이 수취한 스왑포인트로 당일자 청약시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

* 해당월 말일(영업일)까지의 스왑포인트 기준

* 자세한 사항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www.ksure.or.kr/rh-fx/index.do>)에서 확인가능

금일 전망

위험선호 심리 회복에...1,310원 중후반 중심 등락 전망

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2.40원)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증가(1,319.10) 대비 0.70원 하락한 1,316.00원에서 최종호가 됐다.

금일 환율은 글로벌 경기불황 우려에도 위험선호 심리 회복 및 당국의 미세조정 경계에 제한적 하락 시도가 예상된다. 불러드 총재는 올해 1분기 미국 경제지표가 예상보다 강하다고 평가했고, 금융 스트레스도 지난 3월보다 낮아지고 있다고 발언한 영향에 미국 증시는 장 초반 손실을 회복하고 상승 마감했다. 특히 기술주를 필두로 한 성장주 투심개선에 어제 대규모 매도세를 기록했던 국내

증시 외국인 자금도 순매수로 전환할 가능성이 농후함에 따라 금일 환율 하락 분위기에 일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1,320 원 저항선을 앞둔 당국의 미세조정 경계감 및 수출업체 네고물량 유입 또한 환율 하락에 압력을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결제수요와 외국인 배당금 역송금 수요는 하단을 경직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일 달러/원 예상 범위	1312.00 ~ 1321.00 원
체크포인트	■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 -4878.6 억원
	■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NDF) :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0.70원 ↓
	■ 美 다우지수 : 33485.29, +2.57p(+0.01%)
	■ 전일 현물환 거래량(종합) : 125.73 억달러
	■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 +5843 억원

주의사항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입니다.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